"대운하 제동" 특별법 요건 강화 추진

민주 "의원 30인 찬성·심사 거치게"

F1 특별법 제정 불똥…일부 우려도

통합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저지를 위해 특별법의 입법요건을 엄격히 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에 나섰다.

신 명, 김덕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11일 특별법 발의시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을 거치도록 하되 국회의장 직속의 심의기구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특별법의 입법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개발분야를 중심으로 남발되고 있는 특별법 과다입법을 제도적으로 방지,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현 여권이 특별법 제정 방식으로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는 포석도 담겨있어 주목된다. 특별법은 일반법을 보완하는 예외적 법률임에도 현재 시행 중인 특별법이 무려 6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반도 대운하와 같이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면 일반법보다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17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18대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법안은 특별법 발의요건을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으로 명시하고 개발분야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전에 반드시 국회의장 직속의 특별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특별법 입법 요건을 강화할 경우 F1 지원 특별법 등 낙후 지역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한 각종 법률의 제정이 어려워져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법안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들은 또 의원입법의 공동발의 요건을 현행의원 1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는 지난 2003년 의원입법의 공동발의자 수를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낮춘 국회법 개정을 5년만에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신 의원 측은 "17대 국회 이후 '입법국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원입법이 급증했지만 입법의 신중성이나 일반이익의 결집 노력은 오히려 소홀해졌다"며 "입법요건을 엄격히 해 의원입법의 신중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 측에 따르면 17대 개원 후 의원입법 발의건수는 올 4월 현재 총 6천360건으로서 16대 때의 1천912건보다 3.3배 늘어났으나 정작 가결건수는 전체의 21%인 1천316건에 불과해 16대 때의 27%에 비해 6% 포인트가 낮아졌다.

이들 의원은 이밖에 국회의원의 본회의 의석을 배정한 이후 최소 6개월 동안 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6개월후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회의장과 협의해 의석을 다시 배정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지난 10일(현지 시각) 오레곤주의 태양광전지 생산업체 직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바마 VS 매케인 美대선 본선 대결 시동

오바마, 슈퍼대의원 지지 급상승…민주후보 사실상 확정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면서 10일 오바마와 공화당 후보로 결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간 사실상의 본선 대결에 시동이 걸렸다.

오바마는 아직 6개 지역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남아 있지만 지난 6일(현지 시각) 이후 슈퍼대의원들의 지지가 잇따라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의 대의원수 격차가 더 커지자 매케인에 대한 공격에 치중하며 본선 대결을 염두에 둔 행보에 본격 나섰다.

오바마는 9일에 이어 10일도 오는 20일 프라이머리가 열리는 오리건주에서 선거운동을 벌이며 민주당 경선에서의 승리를 자신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일부 슈퍼대의원이 우리 대열에 합류한 것을 감사한다"면서 "내가 당을 화합시킬 수 있고, 존 매케인을 이길 수 있는 후보지명자가 될 것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반증이라고 생각한다"며 승리를 확신했다.

오바마는 특히 힐러리나 힐러리 지지자들의 반감을 사는 발언을 피하는 대신 오는 11월 본선 대결을 염두에 둔 듯 매케인의 경제, 건강보험, 이라크 정책 등을 언급하면서 조지 부시 행정부의 실패한 정책 우선순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집중 공격했다.

오바마는 "매케인이 최근 미국 경제가 조지 부시 정부 하에서 대단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는데, 이는 크게 틀린 것"이라면서 "진정으로 그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매케인 진영도 민주당 경선이 최종 국면에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자 오바마와의 본선 대결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나섰다. 매케인 진영은 이날 오바마가 과거에 휘발유 세금부과 중지를 지지했다가 지금은 이를 '실수'라고 주장한다면서 오바마가 세금인상과 정부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을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매케인측은 8년간의 '퍼스트 레이디' 생활과 재선의 상원의원을 지낸 힐러리와 달리 초선 상원의원이 중앙 정치 무대 경험의 전부인 오바마는 별로 알려진 게 없어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공화당 선거전략가인 스콧 리드는 "오바마는 강한 상대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는 정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공화당원들도 훌륭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美 쇠고기 개방은 현정부 책임"

盧 前 대통령 "설거지 주장은 양심없는 얘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결과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이 임기내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것을 새정부가 설거지한 것'이라는 현 정부 인사들의 소위 '설거지론'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자원봉사차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지지자들과의 만남에서 "설거지를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건 영 곤란하다. 그것은 영 양심이 없는 얘기"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참여정부가 다 해놓은 것을 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는데 뭣 좀 모르고 하는 소리 같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쇠고기 협상과 관련, "우리 상품이 나가는 문은 열어놓고 들어오는 것은 막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렵다"면서 "완전히 수입 반대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성의 확률과 국가적인 체면, 자존심 그것 때문에 못 열었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동물성 사료를 쓰지 않기로 공표만 하면 우리는 연다, 또 실행을 해야 연다, 여기까지 우리가 양보하고 물러선 것"이라면서 "(그런데) 농림부가 이 문제서 양보를 하지 않아 이게 중지돼 버렸다"고 뒷얘기를 소개했다.

그는 "위험의 확률이 얼마만큼이냐 확률의 문제고, 농림부에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쇠고기 개방에 대한 책임과 관련, "분명히 우리는 (도장을) 안 찍었고, 거긴(현 정부) 찍었다"면서 "미국은 조건을 바꾸지 않았고, 우리는 조건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런 발언이 당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던 한 지지자가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이날 공개되자 노 전 대통령측은 봉하마을을 찾은 자원봉사자들과 일을 마친 뒤 환담하는 비공개 자리에서 나온 사적인 얘기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연합뉴스

안희정 "최고위원 출마"

안희정 전 참여정부평가포럼 상임집행위원장은 지난 10일 "통합민주당에는 지금 새로운 리더십과 변화를 향한 젊은 정치인이 필요하다"면서 "7월로 예정된 통합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위원장은 이날 "내가 최고위원이 되면 민주개혁세력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구민주계, 캐스팅보트 쥐나

강한 결속력…민주 대표 선출 영향력 주목

통합민주당 내 구 민주계가 차기 당 대표와 원내대표 경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 민주계는 이번 양대 경선에서 유력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비례대표 당선자를 포함 10여명의 당선자를 배출했고 무엇보다 결속력이 당내 계파 중 가장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당내 다수파였던 정동영계, 김근태계, 손학규계가 상당 부분 와해된 상태고 그나마 결속력도 약한 상황이다.

구 민주계는 이번 6·4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분열 양상을 보이는 다른 계파에 비해 소수지만 강한 응집력으로 자파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이 당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구 민주계는 대의원 선출과 관련, 열린우리당계가 수적으로 많은 지역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식보다는 무작위 추첨비율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또 최인기, 김충조, 김민석, 신낙균, 고재득 등 구 민주계 출신 최고위원들은 박상천 대표 주재로 9일 모임을 갖고 이번 정당대회에서 공동보조를 취하자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 민주계가 똘똘 뭉쳐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체적으로 구 민주계는 당 대표 경선에서 정세균 의원-추미애 전 의원 간 대결구도가 확정될 경우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의원을 미는 것은 정치적 거래나 흥정이 가능하도록 할 여지가 많은 반면 열린우리당 색깔이 걸림돌이고 추 전 의원을 지지하는 것은 당 정체성 확립에는 도움이 되나 독선적 행보와 4년 전 구 민주계와 악연 등으로 인해 정치적 파트너가 되기 힘들다고 보는 때문이다.

더욱이 박상천 대표가 구 민주계를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많은 상황이다. 박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어두운 상황에서 당선자나 당원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힘이 분산될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후진타오 7월 日本 또 갈수도

4박5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7월 또 다시 방일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중국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는 10일 일본이 오는 7월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의에 후 주석의 참석을 초청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은 또 올 가을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을 주최하고 싶다고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참석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일본과의 '전략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중국은 오는 10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를 초청했으며 일본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연합뉴스